주차타워 방만 운영 9년간 13억 날려

전남도, 순천의료원·생물산업진흥원 감사 40건 적발
성관계 동영상 유출 의사 근무, 무자격업체와 수의계약도

순천의료원의 부실한 운영 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자격 없는 직원이 근무하는데도 점검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하는가 하면, 허술한 주차장 운영 방식으로 9년 간 12억9600만원에 달하는 주차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운영하기 힘들다면서…받을 돈 12억은 그냥 날려=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순천의료원은 최근 실시한 전남도의 정기종합감사 결과, 모두 16건의 부당한 행정행위가 적발됐다. 특히, 의료원의 수익 확보 방안의 하나로 주차타워를 조성하고도 방만한 운영으로 수십억원의 주차수익을 고스란히 날린 것으로 드러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순천의료원은 지난 2010년부터 주차타워를 운영하면서 멋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주차 요금을 징수하는가 하면, 입고 시점부터 출고까지 시간을 산정해 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출고 당일 오전 9시부터 주차요금을 산정하는 형태로 허술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면 전날 오전 9시에 주차한 차량이라도 당일 오전 9시부터 주차장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는가 하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주차 요금을 받다보니 일주일 동안 주차하고도 오전 9시 30분 전에만 출고하면 '공짜'로 이용할 수 있었다는 게 전남도 감사 내용이다. '일반인 주차 차량은 최초 30분 간은 무료, 그 후 30분은 600원, 이후 추가로 10분마다 100원씩 징수한다'는 주차장 관리규정이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런 방식으로 월 평균 1200만원씩, 주차타워가 완성된 지난 2010년부터 9년 간 주차 요금을 부과하지 못하면서 무려 12억9600만원의 수익을 날렸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순천의료원은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회계법인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 감사반의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하지만 개인 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자칫 정당한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 가산세를 추징당할 우려도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매년 점검한다면서도…부적절한 직원도 못 찾고=순천의료원은 순천시와 성범죄자 의료인 취업 일제점검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성관계 영상을 불법 유출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의사가 근무중인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순천의료원 등에 따르면 의료원은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근무하던 의사 A씨를 해임했다. A씨가 성관계 영상 불법 유출 혐의로 지난해 3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데 따른 것으로, 의료원은 관련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1년이 지난 최근에야 파악했다. 의료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경우 근무할 수 없다는 인사 규정을 적용했다. A씨의 경우 지난 2017년 의료원 입사 당시에는 형이 확정되지 않아 범죄 이력 조회에서 혐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고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이를 숨기고 계속 근무했다는 게 의료원측 설명이다.

순천시도 지난해 7월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 의료인 일제점검을 벌여놓고도 형이 확정된 A씨의 범죄 사실을 걸러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 성범죄 의료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치원·학교·병원 등에 취업이 제한된다. 뒤늦게 A씨의 성범죄 전력을 파악한 순천의료원은 지난달 2일 A씨를 직위 해제한 후 지난 5일 해임했다.

순천의료원 관계자는 "입사 시 확정판결이 나지 않아 범죄 이력 조회에서 확인하지 못했다"며 "입사 이후에는 별도로 이를 거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전남생물산업진흥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도 무자격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 특혜를 제공하는가 하면,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24건의 부당한 행정 행위를 적발해 시정토록 요구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 제2순환도로 하이패스 효과 '톡톡'

차량 정체 예방·이동시간 단축

광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제2순환도로 하이패스가 차량 정체현상 예방, 이동시간 단축 등의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7월과 9월, 제2순환도로 전 구간에 하이패스 상·하행 각 2차로씩 운영중이다.

하이패스가 개통되기 이전 유인 처리 시스템의 경우 통행료 결제시간이 8~10초 정도 소요된 반면 하이패스 설치 이후 결제 시간이 1초 가량 짧아졌다.

이로 인해 평일 출·퇴근 시간대와 주말, 명절기간 차량 정체로 인한 통행 불편이 해소됐다.

또한, 차량 이동시간이 줄어들면서 연료비 절감의 경제성 효과, 자동차 배기가스 감소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 감소 등의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패스 이용률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현재 통과차량의 73~77%(소태영업소 기준) 이상이 하이패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해 교통 관련 기초조사 결과 제2순환도로 통행속도가 평균 76.64㎞으로 광주시 주요 도로 중 가장 빠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하이패스 개통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로 제2순환도로 통행 수입도 전년보다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소태요금소의 경우 4%, 송암 6%, 유덕 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송암영업소 구간의 시 지원금이 전년보다 13% 감소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김영록지사 세월호 영화 '생일' 관람…"안전 전남 최선"

김영록 전남지사가 세월호 5주기를 앞두고 14일 세월호 유가족의 일상을 그린 영화 '생일'을 관람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간부들과 함께 목포의 한 극장을 찾아 '생일'을 관람했다. 이번 관람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추모 분위기에 동참하고 그날의 안타까운 사건을 되돌아보기 위해 김 지사의 제안해 이뤄졌다.

영화를 관람한 김 지사는 "참으려 했지만 흐르는 눈물을 어쩔 수 없었다"며 "두 자녀를 둔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부모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먼저 하늘로 간 아이의 생일날, 유가족들이 모여 서로 다독이며 아픔을 극복해가는 모습이 슬프지만 아름답게 보였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또 "5년이란 세월이 지났지만 세월호는 아직 진행형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고 다시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한 책무라는 신념으로 안전한 전남을 만드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영산강 홍어축제 상춘객 유혹하는 유채꽃

영산강 홍어축제가 열린 14일 영산강 둔치에 유채꽃이 만발해 상춘객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전남창조혁신센터, 해남 1박2일 여행상품 눈길

12일~27일 서울 출발

(재)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해남군·GS홈쇼핑과 협업을 통해 땅끝 해남의 1박2일 패키지 여행상품을 판매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상품은 12일부터 27일까지 서울에서 출발하고, 해남만이 가지고 있는 주요 볼거리와 먹거리로 짜임새 있게 구성됐다. 국문학사상 대표적 시조시인으로 손꼽히는 고산 윤선도 선생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고산 윤선도 유적지를 시작으로 두륜산 케이블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대흥사, 땅끝 전망대, 우항리 공룡화석지 등 해남 주요 명소 곳곳을 방문한다.

특히 닭코스 요리, 톳밥 회정식, 꽃돌게장백반 등 해남에서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먹거리와 바다가 한 눈에 보이는 땅끝 리조트 숙박 지원으로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 2016년부터 전남 우수 관광상품 GS홈쇼핑 방송 판매를 시작했고, 총 29회 방송을 통해 4000여 관광객을 유치, 직접적인 경제 성과와 홍보 효과를 거뒀다. 오는 11월에는 전국 관광산업 관계자와 전남지역 기관장들과 함께 수도권 관광객 1만명 달성 기념식을 개최해 성과를 공유하고, 전남 관광객 6000만 시대 개막을 선언할 계획이다.

정영준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은 "광양과 해남 관광상품을 시작으로 여수, 순천, 화순, 목포 등 더욱 알찬 관광상품이 준비돼 있다"며 "보다 많은 수도권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 3월 '광양매화축제'를 테마로 한 광양 여행상품을 판매해 900명을 유치, 수도권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영구 임대아파트 공동체 재생 시범사업 추진

광주도시공사, 투게더 광산나눔재단 등과 업무협약

광주도시공사(사장 노경수)는 최근 영구 임대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광주도시재생공동체 센터' '투게더 광산문화나눔재단'과 함께 공동체 재생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장기간 비어있는 영구 임대아파트에 청년활동가가 입주해 마을·공동체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연계한다.

업무협약을 통해 광주도시공사는 하남시영 2단지에 청년활동가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재생공동체 센터는 입주할 청년을 모집하게 된다. 투게더 광산나눔문화재단은 입주할 청년활동가들의 보증금과 필요한 가전·가구를 지원한다. 이 사업에는 광주여대 등 대학과 광주청년센터, 광주시, 행정기관 등의 민·관단체가 참여해 청년과 기존 주민들간의 교류와 소통, 상생 모델을 발굴하는데 힘을 보탠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이번 사업은 영구임대의 공실 및 입주민의 고립화된 공동체문제를 '청년주거'와 연결해 해결해보자는 제안에서 시작됐다.

노경수 사장은 "이번 협약과 시범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공동체활성화와 함께 공실률 해소, 청년주거문제 해결의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면서 "이번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토지보상, 예타면제 부동산 수혜지역은 어디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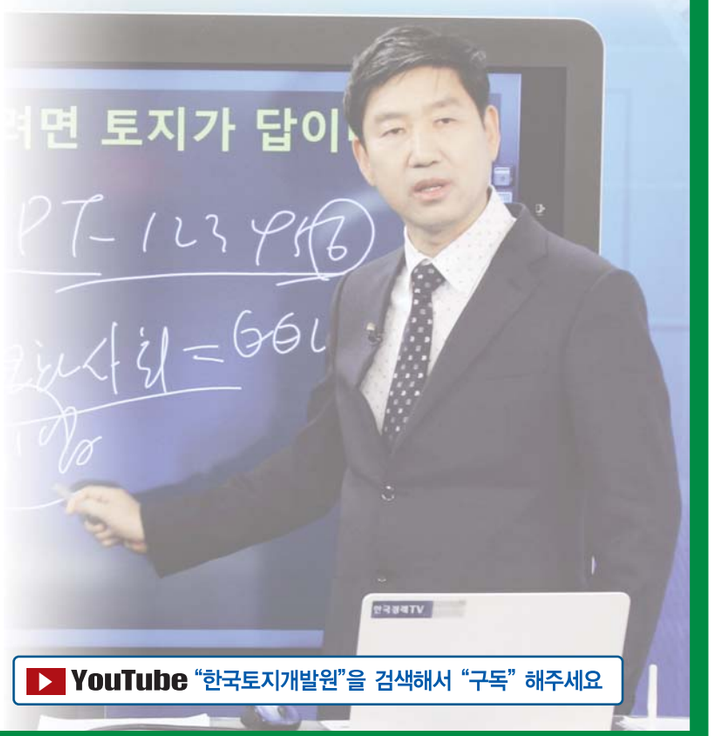
새정부의 계속되는 부동산 안정화 정책들...
아파트, 상가, 재개발, 재건축 등 주택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
토지보상금 "25조"+ 정부24조원 예비타당성 면제
2019년 토지시장 훈풍에 맞춤 투자비법공개
세계경기불안에 따른 향후 부동산시장의 변화와
현명한 자산관리 비법공개
국가에서 개발하는 신개발지를 찾아라

강의내용
- 수도권 및 지방 주택, 아파트시장의 전망
- 전국 토지시장의 전망과 분석
- 2019년 정부정책에 따른 최고 유망지역은?
- 지역균형발전비용 "175조" 투자유망지역 大공개
- 소액으로 건물주 되는 법 특강!

행복한 부동산 강의와 상담이 함께하는
[박관식 전문가의 방송 안내]
▶ WOW 한국경제TV '박관식의땅땅땅' 생방송 출연중!!
(매주 일요일 저녁7시(본방) / 밤11시(재방))

무료 특강 일시 및 장소
광주
• 일시 : 2019년 4월 16일(화) / 오후 2시~5시
• 장소 :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206~207호(광주시 서구 치평동 1159-2)
(1호선 김대중컨벤션센터(미륵역)하차 5번출구 직진 200m(3분소요)

* 당일 혼잡할 수 있으니 사전접수 바랍니다 ※ 특별 무료상담 진행



(KLD) 한국토지개발원 부동산세미나 문의 : 02) 595-4236, 4237
KAKAO TALK "한국토지개발원"을 검색해서 친구추가를 해주세요.